

2009

# 최적의 투자처-캐나다 금융 서비스



## 캐나다 투자현황

- »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시트코 그룹(Citco Group)은 2008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 있는 기술개발 사업장을 확장한 결과, 신규 일자리가 350개 늘어났다.
- » 영국의 인베스코(Invesco)는 2008년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살렛타운에 신규 공장을 가동해 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 뉴욕의 메릴린치(Merrill Lynch)는 2008년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연구혁신 기술 센터를 개설해 25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 » 뉴욕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2008년 3억 달러를 투자해 퀘벡주 몬트리올에 신규 사업장을 개설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 일리노이주의 스테이트팜보험(State Farm Insurance)은 2008년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에 5,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신규 시설을 개설했다.

금융 서비스업은 캐나다 경제에서 기여도가 가장 큰 산업부문으로, 75만 명이 넘는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금융부문은 최근 몇 년 사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2007년 캐나다 GDP의 6%에 해당하는 738억 달러 수익을 창출했다.<sup>1</sup>

캐나다의 금융부문은 은행, 신탁 및 용자회사, 각종 보험사(생명, 건강, 손해, 화재 등), 신용조합, 국민금고, 증권회사, 할부금융 및 리스업체, 뮤추얼 펀드사 및 독립 보험설계사, 연금펀드 매니저, 중개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 핵심역량

**건전한 금융 시스템:** 세계경제포럼 2008년-2009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의 금융 시스템은 세계 최상의 건전성을 가지며, 주요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상태를 보여준다. 이처럼 강력한 금융 위상은 캐나다 은행들이 해외 경쟁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십:** 캐나다의 성숙한 금융부문은 캐나다로알뱅크(Royal Bank of Canada)과 매뉴라이프 파이낸셜(Manulife Financial) 등의 세계적인 금융기업을 만들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성공해 2006년 54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BNP 파리바스(BNP Paribas), 시트코 그룹(CITCO Group)을 비롯한 많은 주요 국제 금융회사들이 캐나다에서 여전히 근거리(near-shore)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규제감독 및 보고:** 캐나다의 선진 금융부문은 뛰어난 금융 관행의 모범사례를 제공한다. 금융기관, 시장, 인프라, 안전망 및 감독 제도로 구성되는 캐나다의 금융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고 모든 금융 중개기관을 포함한다.

**근거리 사업장:** 캐나다는 지속적으로 최고의 금융회사를 양산하고 유치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근거리 사업지원을 위한 선택하는 국가이다. 근거리 사업장은 해당 지역 시장에서의 역할 뿐 아니라 전 세계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주요 가치 창출 기능을 하고 있다.

## 세계 주요 투자기업

-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턴 (Credit Suisse First Boston)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 HSBC
- ING
- 리버티뮤추얼그룹(Liberty Mutual Group)
- UBS AG

## 캐나다 선도기업

- 몬트리올은행(Bank of Montreal)
- 노바스코샤은행(Bank of Nova Scotia)
-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 데자르댕(Desjardins)
- 그레이트웨스트 라이프코 (Great-West Lifeco)
- IGM파이낸셜(IGM Financial)
- 매뉴라이프파이낸셜(Manulife Financial)
- 캐나다내셔널은행(National Bank of Canada)
- 캐나다로알은행(Royal Bank of Canada)
- 선라이프파이낸셜(Sun Life Financial)
- 토론토도미니언은행 (Toronto-Dominion Bank)

» 금융부문은 캐나다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 75만 명 이상의 인력이 종사하는 분야이며, 2007년 캐나다 GDP의 6%인 78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다.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금액은 모두 캐나다 달러임. 1 2007년 캐나다 산업통계, GDP: 금융, 보험(NAICS 25).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의 금융회사들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며, 세계 무역의 통로로서 밴쿠버를 위상을 활용한다.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지리적 접근성은 밴쿠버 금융부문의 소중한 자산일 뿐 아니라, 이들 신흥 경제국가들과 긴밀한 문화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밴쿠버는 특히 은행, 신용조합, 국제금융거래, 벤처캐피탈투자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캐나다 최대 은행 중 5곳이 밴쿠버에 중요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HSBC 캐나다 본점을 비롯해 몇몇 국제은행이 밴쿠버에 본점을 두고 있다. 자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국제 허브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 개발 프로젝트의 구조와 금융을 책임질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 알버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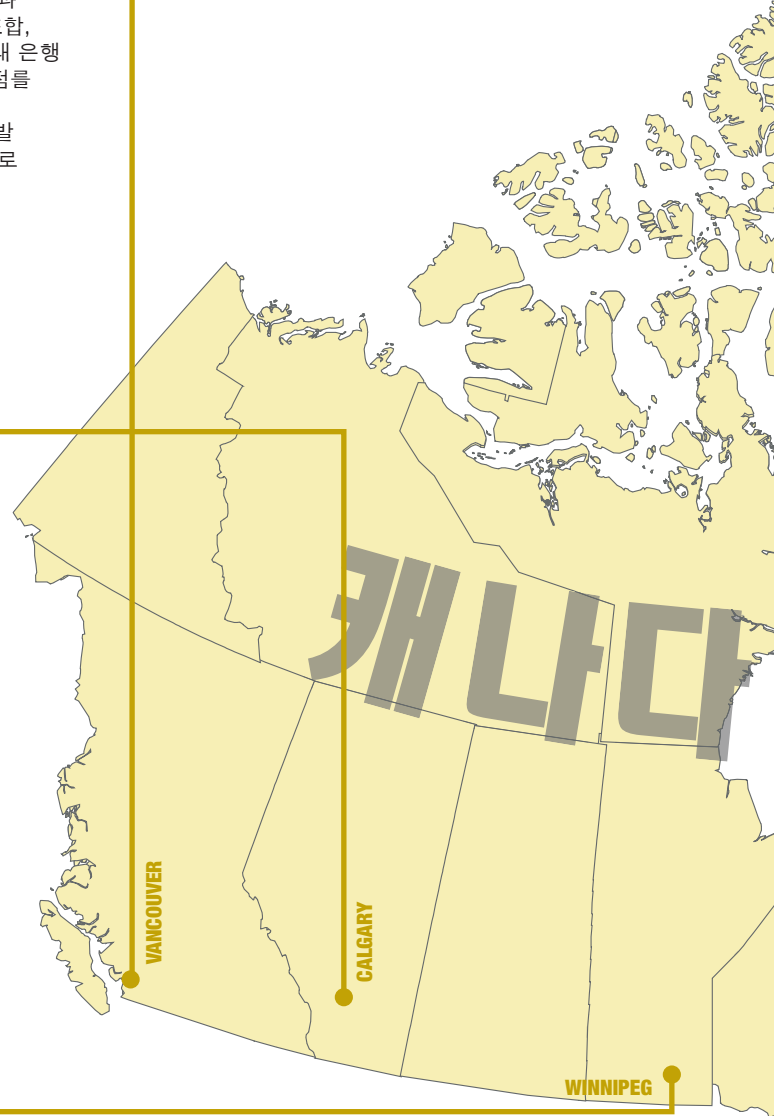
캘거리의 북미지역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도시이며,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캐나다 어느 도시보다 인구당 본사의 수가 많은 지역이다. 캘거리의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만 지난 10년간 19,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마찬가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금융지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22,740명이며,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신규 벤처들의 커다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다수의 주요 지역은행과 국제 투자은행을 비롯해 캐나다의 6대 주요 은행 모두 캘거리에 지점을 가지고 있다. 재산관리 분야 역시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캘거리가 금융서비스부문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전세계에 걸친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의 재정을 맡은 이후이다. 에너지 부문에 투입된 자본과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은 엄청난 규모이며, 에너지 산업 업체 중 상당수가 캘거리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 마니토바주

마니토바주에는 경험이 풍부한 대규모 인력이 경영, 금융, 행정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클러스터에는 기존 은행은 물론이고 보험, 뮤추얼 펀드, 리스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모여있다. 주도인 위니펙에는 2만 명이 넘는 인력이 금융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캐나다 최대의 보험사인 그레이트-웨스트 라이프코(Great-West Lifeco) 본사가 있다. 그레이트-웨스트 라이프코는 캐나다, 미국, 유럽 등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체 자산규모는 3,300억 달러가 넘는다.<sup>1</sup>



미국



##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북미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금융의 중심지이자 캐나다 금융 및 비즈니스 수도이다. 토론토의 금융서비스는 전략 기획, 금융제품개발, 위기관리, 시스템 설계를 비롯해 교육과 개발 부문 등을 망라한 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토론토 증권거래소(Toronto Stock Exchange, TSX)는 시장총액 기준으로 캐나다 최대의 증권거래소일 뿐 아니라 북미에서 세 번째,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거래소이다. 토론토는 캐나다 전체 경제활동의 10%이상을 담당하며, 이는 1,23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토론토에 금융서비스업이 밀집한 까닭에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재와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근로자 수는 20만5천 명에 이른다.

## 퀘벡주

몬트리올의 활발한 금융서비스업 부문에는 3,000개 이상의 회사와 10만 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07년 3.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은행업과 금융중개업, 보험업 및 관련 사업과 증권업이다. 주도인 몬트리올에 있는 주요 은행은 데자르댕(Desjardins), 내셔널 뱅크(National Bank), HSBC가 있고 보험회사로는 스탠다드 라이프(Standard Life) 와 선라이프 파이낸셜(Sun Life Financial)이 있다.

몬트리올은 국제금융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IF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국제금융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나 파트너십 지원을 위해 신설되었다. 몬트리올에는 파생상품과 연금펀드 관리, 금융수학, 금융전산 및 금융공학분야를 망라하는 30여 개 연구소의 본사가 위치해있다.

## 노바스코샤주

노바스코샤주의 금융서비스 분야는 2006년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세계적인 주요 기업들은 할리팩스에 백오피스와 미들오피스를 설립했고, CITCO 펀드(CITCO Fund Services), 버터필드 펀드(Butterfield Fund Services), 마쉬 캡티브 솔루션(Marsh Captive Solutions), 플래그스톤 매니지먼트(Flagstone Management Services), OC 금융 서비스(OC Financial Services) 등이 그 예이다. 금융시장은 주도인 할리팩스에 밀집되어 있으며, 노바스코샤주 내에 1만4천명에 이르는 숙련된 인력이 금융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고, 경영관리 수강 학생이 7천 명에 이른다.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살렛타운은 이상적인 금융서비스 도시로 15개 금융회사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총 2천7백 명이 종사하고 있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는 은행, 뮤추얼펀드 관리 및 보험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도인 살렛타운에 자리잡은 금융서비스 회사들은 북미의 다른 지역에 있는 경쟁상대에 비해 인건비와 임대료를 대대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

## 방법론

본 벤치마킹 연구는 캐나다의 여러 금융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해외 경쟁 비즈니스 지역과 비교·평가한 것이다. 투자자의 관점을 최대한 반영한 본 연구는 대표 시범 투자 프로젝트(금융거래 처리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장—5쪽 프로젝트 프로파일 참조)를 이용해 기업 의사결정자들이 해외 투자지역을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필수 기준들을 평가했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투자지역 컨설팅 업체인 IBM-플랜트 로케이션 인터내셔널(IBM-Plant Location International, 이하 IBM-PLI)이 실시했다. IBM-PLI는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 기업투자 프로젝트 후보지를 선정 시 실제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다양한 지역의 사업운영 비용 및 질적인 측면을 비교·평가했다. 각 산업 부문별 평가를 위해 250~300개의 재무 및 정성적 지표를 검토했다.

각 지역의 사업운영환경을 평가하고자 사업운영환경 평가항목표(5쪽 참조)에 나와있는 각 카테고리별 하위 항목에 필요한 데이터를 여러 출처를 통해 수집했다. 정성적 평가를 위한 데이터는 가중치 적용 점수계산법을 이용해 비교 가능한 점수(0~10점)로 변환했다. 또한 지역 카테고리 및 하위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지역선정과과정에서 나타난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했다. 이러한 가중치는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으며, IBM-PLI가 축적한 전략적 지역 선정을 위한 투자 컨설팅 노하우를 토대로 산정되었다.

각 대표 프로젝트 프로파일에 대해 지역적 영향이 큰 투자와 운영비용 및 매출을 고려하기 위해 철저한 재무분석을 실시했다. 영업비용 추정치의 경우 비용의 순 현재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예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0년간의 추정치를 계산했다.



각국 투자지역의  
사업운영 비용 및  
질적인 측면을  
비교·평가함.



# 투자지역 벤치마킹

## 방법론-대표 프로젝트 프로파일



### 대표 프로젝트 프로파일, 사업 개요

금융서비스 부문을 위한 거래 처리 및 관리 서비스 제공

### 프로젝트 주요 동력

- » 숙련된 인력 활용 가능여부: 회계사 및 금융서비스업 인력
- » 금융서비스업 클러스터
- » 적합한 사무실 건물의 활용가능성
- » 직원들의 영어활용 능력 (기업 내 공통어)

### 운영비용 분석 프로젝트 재무 모델링을 위한 요건

#### 노동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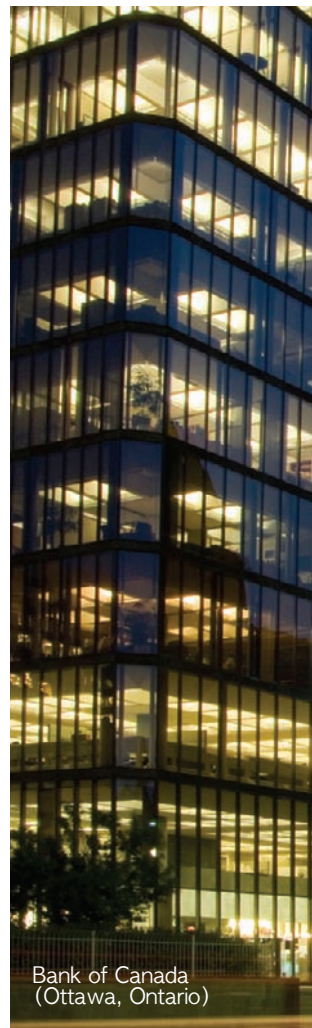
(총인원 = 94)  
 금융분석가: 20  
 회계사: 30  
 총무직원: 25  
 경영 및 행정인력: 9  
 IT 전문가: 10

#### 건물

15,000 sq ft

## 사업운영환경 지역평가항목

<b>전반적인 사업환경</b> » 10%*	» 경제 및 금융 안정성 » 지역정부와 지역 개발 업체의 지원 수준 » 민간 규제, 정보 보안, 지적재산권 보호의 준수 » 사업 인허가 절차 »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여부 » 정치적 안정성
<b>기술인력의 현지 조달력</b> » 35%*	» 금융 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유무 » 학생 인구 » 노동시장의 경색 (실업률) » 인재풀의 전체 규모
<b>해당 산업/클러스터 유무</b> » 10%*	» 산업기반 유무
<b>노동 및 규제 유연성</b> » 5%*	» 채용 및 해고 유연성 » 노사관계/노조의 성격 » 근로시간 규정 » 노동 허가제
<b>기반시설 및 통신</b> » 15%*	» IT 및 통신의 품질과 안정성 » 안정된 전력공급 » 대중교통 » 고속도로 시스템 및 혼잡성 » 항공이용 가능 여부
<b>부동산</b> » 5%*	» 사무용 부지 이용가능 여부
<b>생활환경</b> » 15%*	» 생활비 » 젊은 해외 신입사원 유치 가능성 » 국외거주자(외국인) 유치 가능성
<b>언어능력</b> » 5%*	» 영어 구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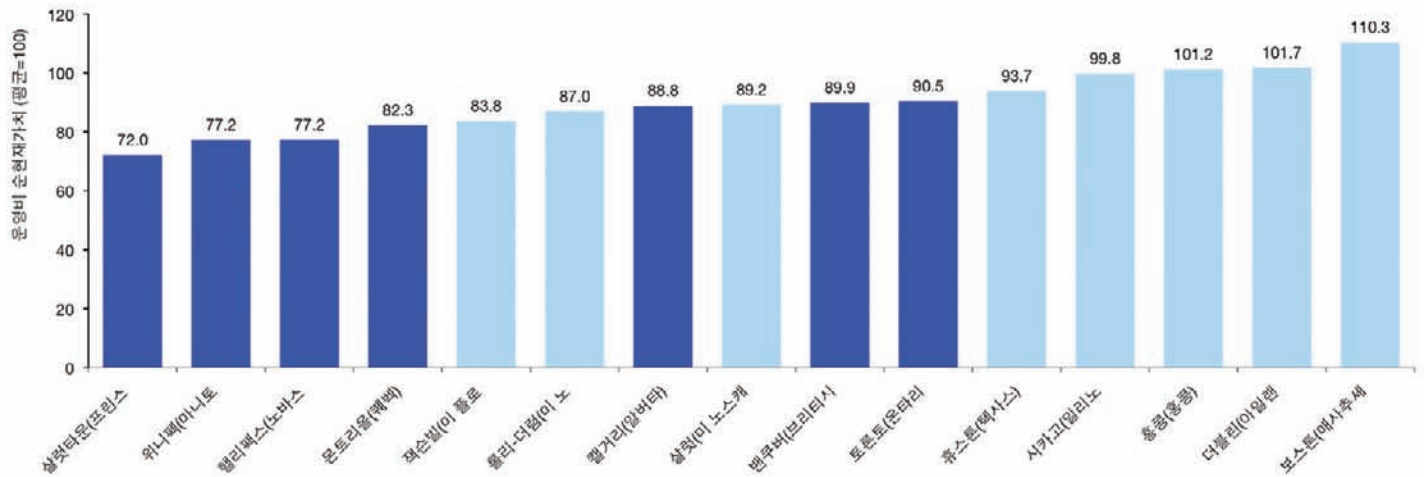
Bank of Canada  
(Ottawa, Ontario)



캐나다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경쟁지역에 비해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강력한 투자 옵션을 제시한다. 선택된 캐나다의 금융 중심지에서는 평가대상인 세계 여러 도시 중에서 최상의 사업환경을 제공한다.

## 비용 평가\*

■ Canadian  
 ■ Non-Canadian  
 1 CAD = 0.862 USD



## 경쟁력 있는 운영비용

IBM-PLI의 투자지역 벤치대상 도시 중에서 캐나다 지역들이 대부분 운영비용의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캐나다의 평가대상 7개 도시 모두가 전 세계 투자지역 중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그 중 살러타운, 위니펙, 캘리팩스, 몬트리올이 최상위 그룹에 위치했다.

인건비, 법인세 및 전기·가스·상하수도비 등에서 상대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결과이다.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토론토와 몬트리올은 정성적 평가 항목에도 전체 평가대상 도시들 중 상위 그룹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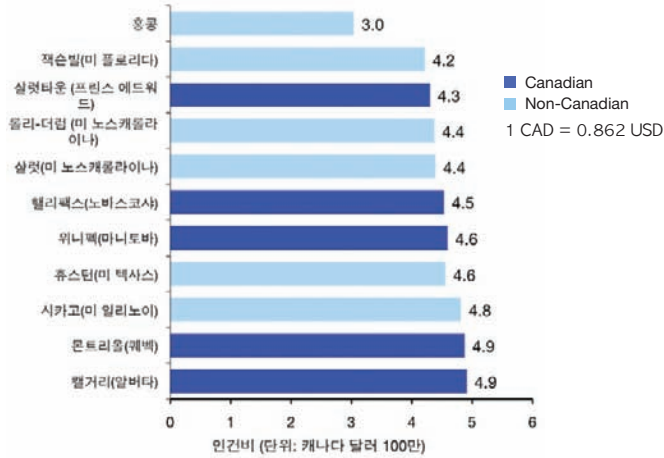
Calgary (Alberta, Canada)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그래프는 IBM-PLI 평가 점수를 나타냄.

# 캐나다의 가치제안



## 연간 추정 인건비 (상위 도시들)\*\*



## 인건비 절감 효과

캐나다의 회계사, 금융분석가, IT전문가를 비롯한 고급 인력의 임금은 북미나 기타 해외지역의 임금수준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캐나다가 미국에 비해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원인은 근로자의 복리후생비가 낮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의료보험 제도는 보험비의 상당부분을 기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고, 이는 결국 회사의 비용절감으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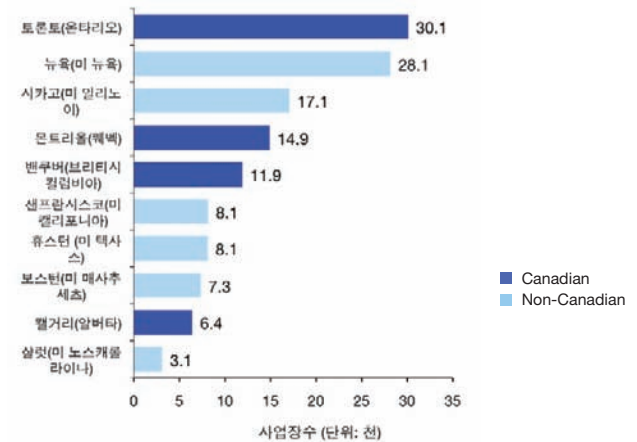
위니펙, 몬트리올, 캘거리와 같은 대도시 지역뿐 아니라 살러타운과 캘릭스 등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도시들은 캐나다에서 인건비 경쟁력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안정적 사업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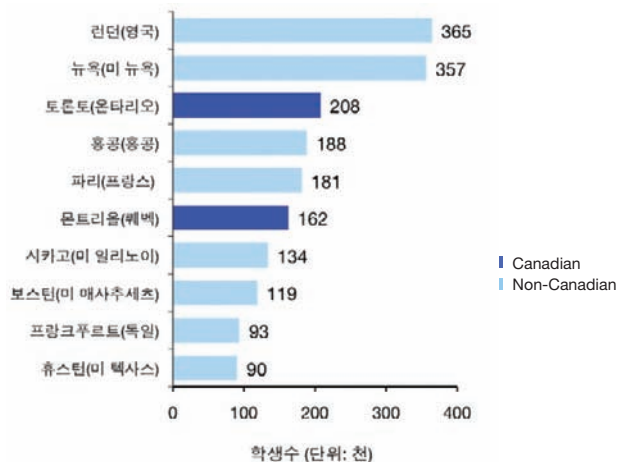
캐나다의 도시들은 금융서비스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제공하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다. 북미지역의 금융 허브로 인정받는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는 숙련된 전문가와 세계적 수준의 기관들을 유치시켜 방대한 인재풀을 형성하고 있다.

몬트리올, 밴쿠버, 캘거리를 비롯한 기타 여러 캐나다 도시들은 수많은 은행과 보험사들의 본고장이며, 바로 이 때문에는 전문기술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캐나다로 모여들고 있다.

## 은행과 보험회사 수 (상위 10개 북미 도시)\*\*\*



## 대학생 수 (상위 도시들)\*\*\*\*



## 고급 인력

훈련이 가능한 학생 인구가 많다는 사실은 금융서비스 분야를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일반 대학 졸업생뿐 아니라 회계 및 기타 비즈니스 관련 전공자들은 방대한 잠재적 인재풀을 의미한다.

캐나다의 전 세계적으로 전문대 포함 대학졸업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sup>6</sup> 본 조사에 포함된 캐나다 도시들은 모두 대학 및 양질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산실이다. 토론토대학, 맥길대학, HEC 몬트리올 등 캐나다에서 가장 큰 두 도시에 있는 대형 대학과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매년 유능한 졸업생을 다수 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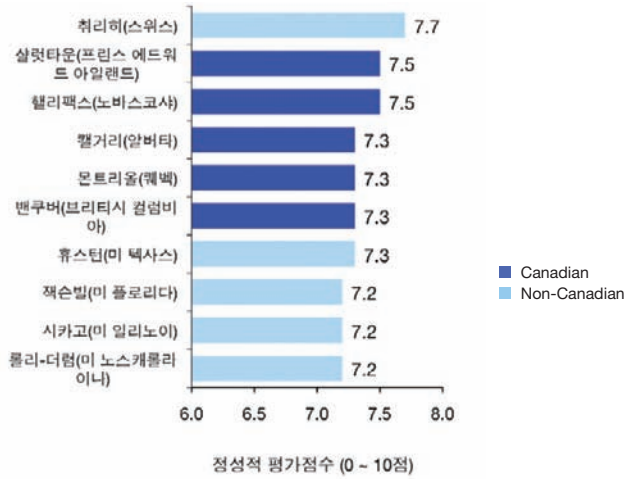


##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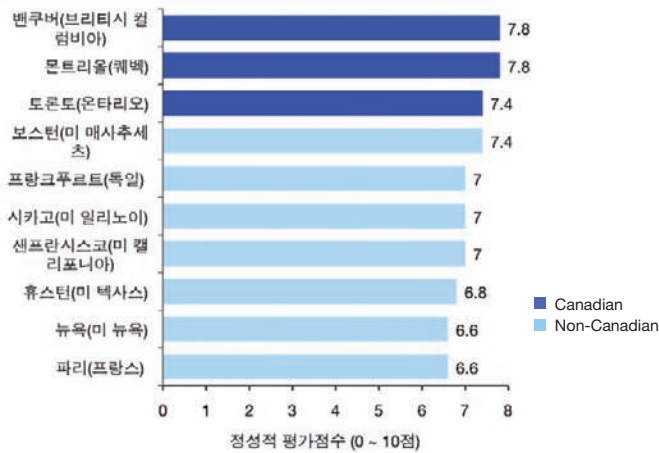
건실하고 역동적인 경제, 낮은 법인세, 지방 정부와 개발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간소한 사업 인허가 절차, 프라이버시 규제, 정보 보안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캐나다는 기업들이 투자해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육성해왔다.

캐나다는 지난 10년간 G7 회원국 중 앞선 GDP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며, 캐나다의 은행 체계<sup>1</sup>는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시스템으로 정평이 나왔다. 캐나다는 높은 성장 가능성과 투자자가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건실하고 강력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한다. IMD, 경영정보연구소 (Economy Intelligence Unit),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연구대상에 포함된 캐나다 도시들은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살럿타운과 핼리팩스는 지역 개발 네트워크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상위권에 올랐다.

## 전반적인 사업환경 (상위 도시들)\*



## 생활환경 (상위 도시들)\*



## 높은 삶의 질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캐나다는 높은 평가를 받는 자국의 생활수준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높은 교육 수준, 잘 정비된 의료보험 혜택, 낮은 범죄율 덕분에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젊고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와 전세계에 있는 구직자들이 캐나다의 여러 도시들로 몰려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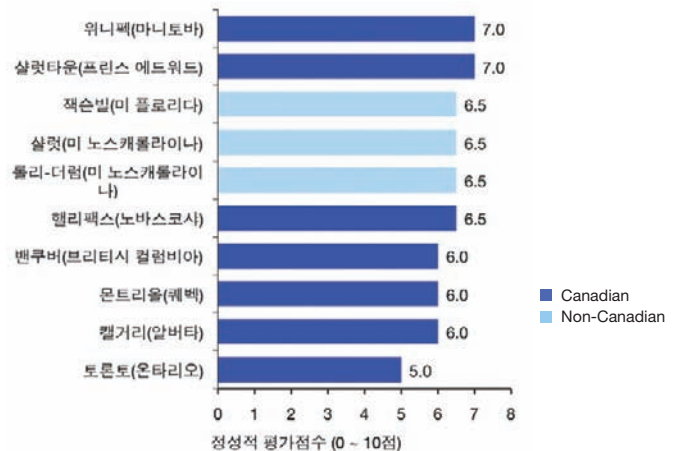
스퍼링 도시순위평가(Sperling's Cities Ranked & Rated)와 경제정보연구소(Economic Intelligence Unit)의 삶의 질 지표(Quality of Life Index) 등의 조사에서 캐나다는 최상위권에 올라있다. 캐나다의 3대 도시인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는 본 평가에서 비교된 세계 여러 도시들 중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익스팬션 매니지먼트(Expansion Management magazine)가 발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밴쿠버가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선정되었다.

## 저렴한 생활비

캐나다는 비교적 낮은 생활비 때문에 외국인과 해외 구직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다. 머서의 생활비 조사와 경제연구소(ERI)의 생활비 지수 등의 국제 기준에 따르면 북미나 기타 세계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캐나다 도시들이 생활비가 저렴해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평가대상에 포함된 도시 중 살럿타운, 위니펙, 핼리팩스는 가장 저렴한 가격의 공산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매력적인 생활 환경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높은 삶의 질과 저렴한 생활비 수준을 고려했을 때, 캐나다의 주요 도시들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다.

## 생활비 (상위 도시들)\*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그래프는 IBM-PLI 평가 점수를 나타냄. 1세계경제포럼 2008년-2009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2008년 10월).

# 최적의 투자처-캐나다

## 캐나다는 투자기업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희망 투자 분야에 대한 전략적 시장 정보
- 정부 정책결정 핵심 인사와 직접 연결 주선
-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기업 및 협회 담당자 소개
- 캐나다 창업 정보 및 자문
- 적합한 투자지역 발굴 지원
- 향후 투자 결정을 위한 비즈니스 사례분석 지원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이것이 바로 성공을 꿈꾸는 귀하가 전략적으로 캐나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캐나다 투자 상담을 원하시면 투자청 웹사이트

[www.investincanada.com/globalnetwork](http://www.investincanada.com/globalnetwork)

를 이용해 주십시오.

캐나다 투자청:  
외교국제통상부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  
서섹스 드라이브111(K1N 1J1)

E-Mail: [investincanada@international.gc.ca](mailto:investincanada@international.gc.ca)  
Website: [www.investincanada.com](http://www.investincanada.com)

카탈로그 번호: FR5-38/7-2009Ko-PDF  
ISBN: 978-0-662-03274-8

본 문서는 캐나다 투자청이 IBM/PLI와 공동으로 제작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본 문서는 세부사항이나 철저한 참조정보 제공을 의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를 읽는 사람은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문서의 정확성이나 시의성, 목적의 연관성 등을 스스로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문서에서 언급된 기업이나 투자는 오로지 설명을 위한 용도이며, 해당 기업이나 투자내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모든 사실과 숫자에 대한 상세한 출처 정보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본 문서 내용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재생지를 사용한 본 문서는 불어를 비롯한 기타 외국어로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의 저작권은 여왕에게 있으며 2009년 캐나다 외교국제통상부 장관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Toronto's Financial District (Ontario, Canada)

